

1973년에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녹화에 힘을 쏟았다. 이때에 경상북도에서는 특수 조림사업을 세워 “경주지역 수종갱신조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오동나무의 조림사업”, 고속도로 및 철로 주변의 “경계조림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도내에 “산림보호특별지역을 1개 군에 1개소[200ha 이상]씩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완결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수단이 산림자원에서 유류(油類)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림의 벌채와 개발은 저절로 감소되었고, 각종 공해물질을 정화하는 환경임업의 측면에서 산림자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산림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삼림욕으로 풀 수 있는 많은 자연수련원을 육성하게 되었다.



<그림 75> 금강송면 오동나무 단지



<그림 76> 복면 밤나무 양묘장

제2절 산림 보호 정책과 조림 현황

1. 임야면적

우리나라의 임야면적은 전체국토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야의 소유형태, 소유규모 및 합리적인 산림정책의 미비로 효율적으로 산림을 보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의 미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임야소유자 중 1ha미만의 소유자가 약 60%나 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의 50% 이상이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아니고 도시

에 거주하는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지 산림을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고, 임산물의 생산에는 관심이 없는 실정이며, 정부의 산림정책이 주로 산림녹화와 사방사업에만 중점을 두어 속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조성함으로써 임산물의 효용가치가 낮다.

울진군의 산림소유별 및 임상별 임야면적의 연도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324>, <표 325>와 같다.

<표 324> 소유별 임야면적의 변화

(단위 : ha)

연별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사유림 비율
		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관	계	도유림	군유림		
1970	85,232	44,026	-	-	2,744	-	-	38,464	45.1
1975	85,099	46,201	46,198	3	2,721	-	2,721	36,177	42.5
1980	85,282	46,992	-	-	2,796	-	-	35,494	41.6
1985	84,685	47,448	2,306	45,142	2,796	-	2,796	34,701	41.0
1990	84,708	47,894	2,406	45,488	2,935	-	2,935	33,879	40.0
1995	84,589	48,222	48,017	205	2,983	-	2,983	33,384	39.5
2000	84,581	48,412	48,199	213	2,949	10	2,939	33,220	39.3
2005	84,319	48,816	48,603	213	2,971	10	2,961	32,532	38.6
2010	84,354	49,104	48,877	227	2,965	10	2,955	32,285	38.3
2013	84,354	49,104	48,877	227	2,965	10	2,955	32,285	38.3
2014	84,354	49,104	48,877	227	2,965	10	2,955	32,285	38.3
2015	84,212	49,445	49,276	169	2,995	51	2,944	31,772	37.7
2016	84,212	49,445	49,276	169	2,995	51	2,944	31,772	37.7
2017	84,212	49,445	49,276	169	2,995	51	2,944	31,772	37.7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표 325>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연별	합계	입목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1975	85,099	77,538	41,555	12,103	23,854	26	7,561
1980	85,282	84,913	58,855	7,128	18,899	1	369
1985	84,685	83,282	57,528	7,353	18,400	1	1,403
1990	84,708	84,045	51,342	8,878	23,825	-	663
1995	84,589	83,886	51,093	8,899	23,894	-	703
2000	84,581	84,449	44,506	13,361	26,577	5	132
2005	84,319	83,840	44,207	13,449	26,179	5	479
2010	84,354	83,425	45,439	12,123	25,858	5	929
2013	84,354	83,425	45,439	12,123	25,858	5	929
2014	84,354	83,425	45,439	12,123	25,858	5	929
2015	84,212	83,101	48,183	11,649	23,178	91	1,111
2016	84,212	83,101	48,183	11,649	23,178	91	1,111
2017	84,212	83,101	48,183	11,649	23,178	91	1,111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울진군 내의 임야면적은 1970년에 85,232ha로서 매년 조금씩 감소되어 2017년에는 84,212ha이었다. 이중 국유림 및 공유림이 약 55~62% 내외이며, 사유림이 37.7~45.1% 정도 차지하여 비교적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산림면적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 비율도 1970년의 45.1%에서 전체 산림면적의 감소에 따라 매년 조금씩 감소되었다. 그러나 국유림 및 공유림의 면적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는 국유림 및 공유림은 개발에 이용되지 않고 비교적 보존되지만 사유림은 소유주들이 다른 용도로 개발 또는 국유림 및 공유림으로의 편입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의 임야면적 중 침엽수림의 면적이 활엽수림의 면적에 비하여 3.3~8.2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침엽수림의 면적은 1975년에 41,555ha이었으나, 1980년에 58,855ha로 증가되었다가 2017년에 48,183ha로 그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활엽수림의 면적은 1975년 12,103ha에서 1980년 7,128ha로 감소되었다가, 2000년에는 13,361ha로 크게 증가한 후 다시 점점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649ha로 감소하였다. 특히 무입목지의 면적은 70년대 이후에 ‘산림녹화’라는 꾸준한 정부시책으로 미 입목지와 황폐지의 면적이 매우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불의 피해면적이 증가하면서 인공적인 식재방식보다 자연 발아식 산림정책의

실시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임목지면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임목축적량

연도별 군내 소유별 임목축적량을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26>과 같다.

<표 326> 소유별 임목축적량의 변화

(단위 : 천m³)

연별	합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죽림
		합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관	합계	도유림	군유림		
1970	2,013	1,321	1,321	-	48	-	48	2,644	-
1975	2,542	1,783	-	-	55	-	-	693	12
1985	-	-	-	-	-	-	-	-	-
1994	7,249	5,252	5,236	16	180	-	180	1,816	-
1996	7,841	5,674	5,657	18	200	3	197	1,967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1997)

산림의 소유별 임목축적량은 소유별 산림면적의 변화와 같은 경향으로 국유림 및 공유림의 임목축적량은 증가하였고, 특히 공유림의 대부분은 군유림에 속하는 임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유림에 분포하는 임목의 축적량은 특히 1970년대와 1980년에 많이 감소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때에는 임목의 용도가 목재용만이 아니라 연료용으로도 많이 벌채되고 식목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산림의 황폐화에 대비하여 1980년대 후반기부터 다시 산림청 및 관계기관에서 치산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농어촌에서도 연료를 임목에서 석유 및 연탄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유림의 임목축적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이후 소유별 임목축적량은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군내의 산림에 분포하는 임상별 임목축적량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및 죽림으로 분류하여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327>과 같다.

<표 327> 임상별 임목축적량의 변화

(단위 : m³)

연별	합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속)
1970	2,013,436	1,465,430	428,387	119,619	(21,600)
1975	2,542,441	2,072,646	409,557	48,638	(11,600)
1980	4,028,681	3,353,356	288,600	686,725	(6.66)
1985	4,753,130	3,591,973	342,804	818,353	-
1990	6,338,122	4,392,139	620,286	1,325,697	-
1995	7,534,225	5,202,465	733,228	1,598,532	-
2000	8,732,744	5,427,109	1,236,676	2,068,959	-
2005	10,397,566	6,420,309	1,468,369	2,508,888	-
2010	14,340,298	7,973,340	2,056,705	4,310,253	-
2013	14,340,298	7,973,340	2,056,705	4,310,253	-
2014	14,340,298	7,973,340	2,056,705	4,310,253	-
2015	14,166,539	9,355,378	1,447,031	3,364,130	-
2016	14,166,539	9,355,378	1,447,031	3,364,130	-
2017	14,166,539	9,355,378	1,447,031	3,364,130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전체 임목축적량 중에서 침엽수 및 활엽수 모두 197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침엽수의 축적량은 1970년에 1,465,430m³이었으나 2017년에는 9,355,378m³로서 6.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 이후에 산림녹화정책이 침엽수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된 결과로 판단된다. 동시에 활엽수 축적량의 증가는 3.4배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은 작으나, 혼효림 축적량도 특히 199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1990년 이후에는 가정용 연료의 변화와 입산금지 등의 산림보호정책으로 28배 이상 증가되어 자연림의 임목 축적량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조림현황

1970년 이후 시행된 조림실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28>과 같다. 연도별 조림 현황은 1970년대에 산림녹화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조림사업이 추진된 결과 1970년에 627ha에 1,805본, 1975년에 367ha에 1,844본의 조림실적을 보였다. 1980년 이후에는 조림면적 및 조림규모는 감소하였지만 2007년까지는 주로 장기수와 조경수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진행되어 단순한 산림녹화 정책이 아니라 산림의 자원화정책 및 경제림 육성정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연도별 조림현황

(단위 : ha, 천본)

연별	합계		장기수		유실수		속성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70	627	1,805	-	-	-	-	-	-
1975	367	1,844	-	-	-	-	-	-
1980	530	466	78	234	12	8	-	-
1985	135	306	90	270	5	2	-	-
1990	248	670	218	654	13	5	13	4
1995	85.8	246.2	72.0	222.0	-	-	-	-
2000	17.0	34.2	11.0	27.5	-	-	-	-
2005	17.0	21.0	7.0	18.0	-	-	-	-
2007	99.0	49.5	10.0	30.0	7.0	12.0	-	-

연별	대묘수		조경수		기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70	-	-	-	-	-	-
1975	-	-	-	-	-	-
1980	-	-	-	-	-	-
1985	-	-	-	-	-	10
1990	2	3	1	3	-	-
1995	3.0	12.0	10.8	19.7	3.8	8.5
2000	-	-	6.0	6.7	-	-
2005	-	-	10.0	3.0	-	-
2007	-	-	12.0	7.5	70.0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08)

2008년부터 조림사업의 구성을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산불피해복구조림, 금강소나무후계숲조림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조림 면적과 조림본수가 치산사업의 안정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제수조림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울진군의 자람이며 관광자원인 금강소나무 보존과 확대를 위한 금강소나무숲조림은 일정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표 329> 연도별 조림현황

(단위 : ha, 천본)

연별	합계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2008	311.0	326.0	164.0	287.0	53.0	30.0
2009	337.0	614.0	196.0	519.0	58.0	81.0
2010	179.0	296.5	86.0	258.0	24.0	31.6
2011	93.8	127.1	40.0	110.0	15.0	7.9
2012	138.0	198.1	44.0	112.0	57.0	79.7
2013	124.0	180.2	30.0	90.0	59.0	85.2
2014	86.0	126.0	29.0	87.0	22.0	30.2
2015	68.5	62.4	7.0	20.0	25.2	36.1
2016	68.0	84.8	10.0	26.0	25.0	31.8
2017	61.3	18.2	-	-	16.0	15.2

연별	유휴토지조림		산불피해복구조림		금강소나무후계숲		기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2008	12.0	9.0	-	-	82.0	-	-	-
2009	27.0	14.0	-	-	56.0	-	-	-
2010	19.0	6.9	-	-	50.0	-	-	-
2011	6.0	5.5	-	-	30.0	-	2.8	3.7
2012	7.0	6.4	-	-	30.0	-	-	-
2013	5.0	5.0	-	-	30.0	-	-	-
2014	5.0	8.8	-	-	30.0	-	-	-
2015	6.3	6.3	-	-	30.0	-	-	-
2016	3.0	9.0	-	-	30.0	18.0	-	-
2017	4.6	3.0	-	-	40.7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09~2018)

조림사업과 동시에 산림녹화정책이 단순 산림녹화에서 산림자원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가 실시되었다. <표 3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벌채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숲 가꾸기의 벌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0> 입목벌채 허가(신고)

(단위 : m²)

연별	합계		주벌		수익숙아베기		숲가꾸기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2014	31,797	14,663	238	238	72	72	24,250	7,116
2015	32,014	11,789	7,501	7,501	-	-	22,200	1,975
2016	33,554	11,467	6,406	6,406	-	-	23,162	1,303
2017	33,297	6,184	2,702	2,702	-	-	27,664	551

연별	수종갱신		피해목		산지전용		기타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벌채량	수집량
2014	29	29	872	872	3,519	3,519	2,817	2,817
2015	-	-	234	234	2,079	2,079	-	-
2016	-	-	605	377	3,345	3,345	36	36
2017	-	-	137	137	2,794	2,794	-	-

* 2014년부터 신규작성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5~2018)

4. 사방사업

연도별 시행된 사방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표 331> 연도별 사방사업의 실적

(단위 : ha, 천본, 천원, m)

연별	산지 및 해안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공사비	연장	개소	공사비
1970	40	200	-	-	-	20	100
1978	109	545	-	-	-	8	40
1980	450	2,250	-	-	-	-	-

연별	산지 및 해안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공사비	연장	개소	공사비
1985	133	665	615,562	-	-	-	-
1990	100	500	571,703	79,225	2	346.9	69,931
1995	5	20	102,318	83,384	1,000	1	58,892
2000	20	83	1,075,740	-	-	2	343,766
2005	-	-	-	191,000	1,000	-	250,000
2010	1	4,690	211,295	338,691	2,100	6	1,188,082
2012	1.7	-	94,734	785,976	5,200	7	1,202,898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3)

사방사업은 주로 1970년대부터 주로 산지 및 해안지역의 산림지역에 사방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산지 및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야계사방과 사방댐 공사도 추진되었다. 2000년 이후의 산지 및 해안사방실적은 감소한 반면 도로변 중심으로 야계사방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으며, 사방댐 사업 또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사방사업의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사방사업은 주로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2> 연도별 사방사업의 실적(계속)

(단위 : ha, 천본, 천원, m)

연별	산지보전	계류보전	사방댐	해안방재 림조성	해안침식 방지	식재본수	다목적댐	산림유역 관리조성
2013	-	5	6	-	-	-	-	-
2014	-	5	7	2	-	-	-	-
2015	-	4	6	1	-	-	-	-
2016	2	4	9	-	1	-	-	-
2017	1	5	6	1	-	-	-	-

* 2013년부터 항목 추가 및 삭제

* 2017년부터 산사태예방 항목 삭제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4~2018)

5. 산림피해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

1) 산림피해의 현황

도벌, 벌채, 산불 및 기타 산림훼손 등으로 발생한 산림의 피해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333>과 같다.

<표 333> 연도별 산림피해 현황

(단위:건, ha, 천원)

연별	합계			도벌			무허가벌채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1970	171	-	-	66	-	-	102	-	-
1975	39	-	-	17	-	-	11	-	-
1980	32	10.39	991	3	0.06	19	7	4.41	1
1985	12	2.60	464	4	0.50	118	3	-	41
1990	5	0.39	288	2	0.07	56	1	0.12	16
1995	8	0.12	2,630	-	-	-	2	0.03	100
2000	11	319.81	790	-	-	-	-	-	-
2005	15	9.60	51,170	-	-	-	1	-	47
2010	12	2.00	22,095	-	-	-	-	-	-
2013	14	14.70	78,609	-	-	-	3	0.09	3,497
2014	8	1.32	54,021	-	-	-	1	0.02	789
2015	5	2.08	95,680	-	-	-	1	0.31	870
2016	15	1.15	78,059	-	-	-	1	0.01	357
2017	12	2.73	306,979	-	-	-	1	0.01	245

연별	불법산지전용			산불			기타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1970	1	-	-	-	-	-	2	-	-
1975	-	-	-	-	-	-	11	-	-
1980	4	0.07	31	4	2.25	115	13	3.30	725
1985	-	-	-	-	-	-	14	1.80	305
1990	2	0.20	216	-	-	-	-	-	-

연별	불법산지전용			산불			기타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건	면적	피해액
1995	5	0.09	2,210				1		320
2000	2	0.11	2,629	9	319.70	787,593	-	-	-
2005	3	0.24	21,504	2	9.08	25,776	9	0.28	3,843
2010	1	0.30	9,400	5	0.90	3,114	6	0.80	9,581
2013	7	1.24	46,632	4	13.37	28,480	-	-	-
2014	4	0.20	13,346	2	1.10	39,210	1	-	676
2015	1	0.12	3,100	2	1.10	78,720	1	0.55	12,990
2016	4	0.40	34,476	3	0.36	43,009	7	0.38	217
2017	8	2.32	271,466	6	0.41	35,266	2	0.10	1,432

* 2013년부터 명칭변경(산림피해→불법산림훼손피해현황)

* 2017년부터 단위 명칭 변경(건수→건)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최근에 이르러 등산객들에 의한 산불발생으로 산림의 훼손이 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벌, 무허가벌채 등에 의하여 산림의 피해가 심하였다. 1970년대에는 조림사업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도벌, 무허가벌채 및 산불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는 1980년대에 가장 심하였다.

특히 이때에는 임목이 농가의 소득원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므로 관계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도벌 및 무허가로 인한 벌채가 심하여 그 피해액이 막대하였다. 1995년 이후에는 도벌은 사라졌고 무허가벌채의 건수 및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불법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의 산림피해 면적의 85%, 피해액의 88.4%를 차지하여 산림피해의 대부분이 불법산지전용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산불은 2000년에 9건이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주었으며, 2000년 이후 산림피해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진군은 보안림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연도별 지정 현황은 <표 334>, <표 335>과 같다.

<표 334> 연도별 보안림 지정 현황

(단위 : ha)

연별	토사방지	풍해방지	낙석방지	수원함양		어부	항행목표	보건	풍치
				1종	2종				
1995	659	-	-	476	-	730	-	-	133
2000	-	-	-	468	-	724	-	-	102
2005	113.4	-	-	467.6	-	704.0	-	-	101.9
2007	113.4	-	-	467.6	-	691.2	-	-	101.9

연별	토사방비	생활환경	비사·해안 방비	수원함양			어촌	경관	
				1종	2종	3종		명승지	고속 도로변
2008	-	-	-	467.6	1	-	-	101.9	-
2012	-	-	-	466.2	-	-	-	101.9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96~2013)

<표 335> 연도별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ha)

연별	재해방지 보호구역	생활환경 보호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			경관
				1종	2종	3종	
2013	761	-	264.4	466.2	-	-	101.8
2014	761	-	267.7	466.2	-	-	101.8
2015	791	-	267.7	466.2	-	-	101.8
2016	386	-	264.4	224.1	-	-	3.7
2017	386	-	264.4	224.1	-	-	3.7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4~2018)

3) 울진군 임업기관 및 단체

울진군의 임업기관 및 단체는 <표 336>과 같다. 2019년 말 현재 울진군에는 3개의 임업 기관과 13개의 임업단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6> 울진군 임업기관 및 단체 현황

연번	기관 및 단체	내용	비고
1	울진군 산림조합	-	임업기관
2	울진 산림항공관리소	-	
3	울진 국유림관리소	-	
4	임업후계자 울진군협의회	-	단체
5	고초령 산양삼 영농조합법인	장뇌삼의 생산, 판매	
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양	육림사업	
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인팜	송화버섯 생산, 판매	
8	울진송이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송이 생산, 판매	
9	금강소나무 야콘마영농조합법인	야콘, 마 생산, 판매	
10	울진군 복면 고사리영농조합법인	고사리 생산, 판매	
11	기곡영농조합법인	버섯 생산, 판매	
12	왕피천 산채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공동출하	
13	영농조합법인 울진버섯	농산물 수출	

출처 : 울진군 산림녹지과 내부자료

제3절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산업

1. 울진소나무[춘양목, 금강송, 적송]

울진소나무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11,610ha의 면적에 전국 최대 규모로 집단자생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재질과 향이 뛰어나 궁궐의 축조나 왕실의 관목으로 사용되었고, 조선 시대 숙종 때부터 황장(黃腸)동산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현재는 국가보호림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계의 임업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울진의 특산수종이다. 1998년 12월에 울진군에서는 울진군 소광리 일대에 자생하는 국가천연보호림 적송을 “울진소나무”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로 결정하고 이를 내외에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울진소나무”가 적송, 황장목, 춘양목 및 강송 등으로 불리어와 주민들은 일반소나무와의 구별이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자생지인 울진군 소광리 “울진소나무”의 자생지로 찾아가려는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견학을 위한 학생들이 36번 국도상 불영사계곡을 오르다 금강송면 광천교에서 접어들어야 하는 외길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울진읍에서 하당리를 거쳐 “울진소나무”